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3월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하브루타 수업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공부법으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고양제일중 박경란 교사의 하브루타 수업

친구들과 묻고 답하며 공연 기획과 팸플릿 제작해요!



모둠별 하브루타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고양제일중 학생들. 고양제일중 제공

“공연기획의 개념은 무엇이지?” “어떤 주제로 공연을 기획할까?”

“공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일까?”

경기 고양제일중의 음악 수업시간. 학생들은 짝과 함께 공연기획이란 무엇이고, 어떤 공연을 기획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브루타 수업은 2명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토론 수업. 모둠별로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 홍보를 위한 팸플릿을 제작해보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짝과 함께 공연기획의 정의에 대해 토론하고, 답변을 경청하며 자신들만의 개념을 형성

한다. 이후 팀원과 함께 어떤 주제로 공연을 기획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경란 고양제일중 음악 교사는 3학년 음악 교과를 재구성해 2학기 수업 ‘공연기획에 대한 사색(2차시)’과 ‘음악회 팸플릿 만들기(4차시)’에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했다. 박 교사는 모든 음악 수업에 하브루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플립러닝으로 토론에 깊이를 더하다!

박 교사는 하브루타 수업에 ‘플립러닝’을 접목했다. 플립러닝이란 사전에 온라인 강의영상을 시청한 후 교실에서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방식. 박 교사가 수업 방향과 사전미션을 안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 학생들은 이를 시청하고 수업 전 미션을 수행하며 토론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쌓았다.

학생들이 수행한 미션은 △관객 연령과 장르, 예산의 제약 없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 기획하기 △공연을 올릴만한 주변의 문화시설 조사하기(시장조사) △작품, 캐스팅, 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연기획서 작성하기 △카카오톡 하브루타로 모둠에서 기획하려는 공연 주제를 논의하고, 역할분담 하기 등 총 4가지다.

박 교사는 “학생들은 개인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직접 방문해 수용인원과 공연장의 크기를 확인하고, 전화문의로 공연장 대관료를 알아보며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며 “협력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고, 이를 친구와 공유하면서 배려심과 협동심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선 팀원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사전에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친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교사에게 전송하도록 해 무임승차 문제도 방지할 수 있었지요.”(박 교사)

심층토론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공연을 기획!

사전미션을 수행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본격적으로 공연기획과 팸플릿 제작을 위한 하브루타를 진행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주제에 맞춰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목표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공연기획 방안은? △우리 모둠만의 창의적 컨셉은? △해당 공연을 선택한 이유와 공연기획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기획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과 같은 질문이 적힌 조별 학습지를 제공한다.

모둠토론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 학생이 기획하고 싶은 공연의 장르와 초빙하고 싶은 음악가에 대해 설명하면, 팀원들은 해당 음악가를 섭외하기 위한 방법과 공연 장소, 대관료, 홍보에 필요한 예산, 문제점 등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10~15분간 심층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공연기획서를 작성한다. 사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연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박 교사는 “한 모둠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고려해 ‘호두까기 인형’을 뮤지컬로 재구성한 공연을 기획했다”며 “고양시 아람누리 아람극장을 공연장소로 선정하고, 뮤지컬 배우를 캐스팅한 뒤 주연배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홍보 수단으로 삼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연기획을 마친 학생들은 팸플릿 제작을 위한 하브루타를 실시한다. △어떤 규격의 종이를 사용하고 △몇 면(4·6·8면)으로 팸플릿을 구성할 것이며 △팸플릿의 콘셉트(메인 색상과 디자인)

인)와 구성요소(인사말, 등장인물 소개, 악력, 공연장 위치, 배경음악에 대한 정보 등)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 것.

박 교사는 “하브루타 수업은 인성교육에도 효과적”이라며 “한 학생은 수업이 끝난 후 “성공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팸플릿을 제작하기 위해선 팀원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팀원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하브루타, 상상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도구”

Q.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대다수 학생들은 토론을 ‘논리로 싸워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브루타의 핵심은 서로를 존중하고 생각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하브루타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들어주고,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상대의 의견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일부 학생은 토론 도중에 화를 내는데, 이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야만 논리적으로 질문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승리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수업 초기에는 학생들이 질문 만들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핵심 질문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적은 학습지를 제작해 제공하는 것이 좋다.

Q. 수업의 효과는?

하브루타는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데에 효과적이다. 특히 학생들은 현실과 상상력을 통합하는 능력을 가꿀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진로를 실현하려면 여러가지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하브루타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대안을 고민하게 하면서 현실과 꿈이 연결되도록 한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하는 일처럼 현실에는 높은 학습능력을 갖추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학생들은 하브루타를 통해 깊이 사고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도 함양하게 된다.

Q.하브루타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하브루타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정답 찾기’에 익숙해 스스로 질문을 구성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답은 없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참여에 소극적인 학생에게 “너는 왜 질문을 안 하니? 질문해봐”라는 강압적인 자세보다 학생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너는 무엇을 준비해왔니?”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가벼운 질문으로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박경란 경기 고양제일중 음악 교사